

# 북한이탈남성의 정신건강: 일반 한국남성과의 비교를 통한 보건 의료 정책적 함의의 모색

김 준 홍\*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utcomes of North Korean male defectors: comparing with general Korean males and searching for health policy implications

Jun-Hong Kim, PhD\*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un-Hong Kim, E-mail: junnh@hanmail.net

Received March 10, 2011 · Accepted April 12, 2011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male defectors' emo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criminal victimizations when compared with general Korean male population, the reference group, and to explore mental health and medica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Using and analyzing merged data from 'Crime Victimization in Korea, 5 (2006),' and 'A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2006),' the author found that group differences do exist in the components of emo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possible victimizations from crimes and violences. For each of emotive and cognitive responses to threat of victimizations, North Korean defector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general male population except perceived vulnerability. For behavioral responses,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to provide the evidences for the need of transformations of micro- and macro-level health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Keywords:** North Korean male defector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Victimization of crime and violence; Mental health; Health policy

### 서론

2010년 1월 기준 2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에 입국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북한의

체제를 경험한 후 북한의 식량부족, 경제난이나 체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 머물다가 한국 등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은 순탄하지 않다[1]. 탈북, 제

3국을 통한 남한입국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생존에 위협적인 체험이 주는 참혹한 고통으로 인한 신체 및 심리적 외상을 가지게 되고[2], 많은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경험하게 되며[3], 그에 덧붙여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결국 이들은 한국에서 정신적 불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게 되는데, 많은 경우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장애, 불안 및 행동화 장애, 음주문제 등의 많은 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한다[4].

비단 탈북자들이 아니더라도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주의 난민(refugees)이나 이주민(migrants)들은 특히 폭력에 노출된다[5].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DSM-IV, 1994)에 의하면 우연히 발생한 기술결함이나 사고 외에도 사람인 저지른 사건으로서의 폭력이나 범죄행위 피해 경험도 중요한 외상으로 분류된다. 외상적 경험을 한 난민/이주민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6-11]. 외상적 경험을 하는 난민/이주민들은 대개 공포증을 가지게 되는데[12], 북한이탈주민도 그 예외가 되지 못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서 규정되어 강제노동, 성적 착취, 인신매매 등 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고, 북한 송환시에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공포감속에서 고달프고 절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1].

본 연구는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이 과거 체험했던 인권유린, 폭력, 체포, 강제소환 등의 두려움은 사실 상당 부분 그것이 북한체제이든 비인도적 제3국이든 국가 및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합법화된 범죄/폭력'이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다[3].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입국 전부터 인권유린과 폭력을 조장, 방치하는 합법화된 범죄/폭력행위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일상속에서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할 당시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한국인들과 상호적응해 가는 과정에서도 범죄/폭력피해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비정상적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의 문헌에서 아직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주제 분야, 즉 북

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을 비교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중에서 남성들이 가지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정서), 범죄피해 위험지각(인지), 범죄피해에 대한 행동적 대응(보호행동)의 주요 특질을 살펴보고, 특히 남한 준거집단인 일반 남성들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연후 연구결과가 가지는 보건의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 이론적 고찰

공개처형, 고문, 구타 등의 목격과 위협이 주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범죄/일탈행동/폭력의 피해로 인한 외상은 임상적 측면에서 특히 정신보건 문제와 관련된다[13]. 범죄폭력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남는 것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외상들이다[14]. 심지어 아직 실제 피해자는 아니지만 단지 가상적 범죄 및 폭력 피해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인지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게 될수록 정신건강은 매우 심하게 훼손되는 경향성을 가진다[1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늘날 중요한 정신과적 장애로 분류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적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6].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1994)에 의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죽음이나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 등을 경험함으로써 이로 인한 두려움/절망감/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서 외상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피하면서 일반적 반응이 둔해지고, 각성의 증가로 인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정 기간 이상의 중요기능의 장애에 처해져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 잠복기를 거쳐 경험되는데, 이러한 외상적 반응은 종종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외상적 사건과 연관된 환경적 위협에 대해 주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예민함을 보여 준다[17].

탈북자들이 중국 등 제3국의 장, 단기 체류 속에서 실제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 생애사건인 범죄 및 폭력행위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단지 타인의 피해를 목격했는지 아니면 발생 및 목격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경험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러한 범죄 및 폭력의 직·간접적 피해 및 그 개연성의 존재는 당시 그들의 정신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현재적, 잠재적 위해요인이었으며, 이는 이들 탈북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18,19]. 그런데 과거 불안정한 상태와 달리 북한이탈남성들이 경찰청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하게 한국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20], 여전히 범죄피해에 대해서-비록 그것이 개연적인 것에 불과하다하더라도-민감하면서도 독특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선행문헌에서 일반인구집단을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간의 상관관계가 연구되었으며, 그것들이 하나의 다중개념구성물(multifaceted construct)을 구성한다고 보았다[21,22]. 본 연구는 이 개념을 북한이탈남성들에게 적용하여 일반 한국남성들과 비교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남성들의 정서적 반응이 평균적으로 일반 한국남성들과 달리 독특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자신과 가족 등 주변인들이 범죄폭력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는 북한이탈남성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범죄폭력 피해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개념화[22]되어 온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혹은 범죄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fear of victimization)을 일반인들보다 북한이탈남성들이 극명하고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탈남성들의 인지적 반응이 평균적으로 일반 한국남성들과 달리 독특할 수 있다. 범죄폭력 피해의 위협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이른바 범죄피해 위험인지(risk perception)라고 하여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범죄피해의 위험인지는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전적으로 비정서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폭력 피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인 위험인지를 구성하는 요

소는 두 가지인데, 범죄폭력 피해의 발생확률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범죄폭력 위협의 크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23,24].

셋째, 북한이탈남성들의 행동적 반응이 평균적으로 일반 한국남성들과 달리 독특할 수 있다. 정서적, 인지적 반응 외에도 개인들이 범죄폭력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적 반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선행연구들[25-27]은 그러한 행동적 반응을 수동적/회피적 보호행동(avoidance behavior)-예컨대, 범죄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특정 장소를 피해 다니는 것-과 적극적/방어적 보호행동(defensive behavior)-예컨대, 방어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현관에 이중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개인 자신을 위한 보호행동과 특히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보호행동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 연구가설

본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위험인지, 보호행동에 있어서 북한이탈남성 집단과 준거집단(일반 한국남성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특히 북한이탈남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 인지, 보호행동의 주요 특질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건의료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들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남성들이 일반 한국남성들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연구가설 1:**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의 두려움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의 위험인지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2-1:**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의 가능성 지각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2-2:**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의 심각성 지각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북한이탈남성들이 일반 한국남성들에 비해서 범죄피해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행동적 반응인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 인구집단에서 대체로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 및 인지 반응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에 관련된 보호적 행동조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보인다[21-23].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들이 북한 및 중국 등에서 범죄/일탈행동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어도 장래 범죄의 예방적 행동을 적절히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 경험의 부정적 생애사건이 때로는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28]. 회복/접종(resilience/inoculation) 관점은 예컨대 탈북자들의 이전의 피해경험은 미래의 피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처전략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바라보지만, 취약성(vulnerability) 관점은 탈북자들이 외상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오히려 한국 정착 이후의 범죄폭력 등 부정적 경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29].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따른다. 게다가 특히 자택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중자물쇠, 쇠창살, 비디오폰, 비상벨 등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및 경비회사와의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내에서 최하층으로 머무르는 이상[30,31] 그 같은 방어적 보호행동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남성들이 일반 한국남성들에 비해서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연구가설 3:**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 **연구가설 3-1:**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로부터 자기 보호행동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 **연구가설 3-2:** 한국 내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보다 범죄피해로부터 가정/자택 보호행동 수준이 더 낮을 것이다.

## 연구방법

### 1. 자료의 성격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두 가지 원자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변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친 자료(merged data)이다. 두 가지 원자료는 2006년의 유사한 시점에서 한국의 국책연구원의 전문인력의 조사설계를 거쳐 획득된 비교적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다. 우선 첫 번째 원자료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5차(Criminal Victimization in Korea, 5)’ 설문조사에 입각하여 2006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에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의 제 5차년도 조사로 공식 범죄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범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과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었다. 설문지는 개인의 생활양식 및 일상 활동, 범죄추세, 범죄의 심각성,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죄예방 조치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범죄유형(자동차 부품절도, 자동차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대인절도, 대인강도, 폭행 및 상해, 성폭력과 성희롱)별 피해상황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의 표본추출방식은 규모 비례확률표본추출로서 그 추출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5세 이상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도별 표본수를 할당한 후, 최종표집단위인 100개의 읍, 면, 동을 선정하고, 각 최종표집단위 당 20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별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를 감안하여 시도별 조사 표본 수 할당을 한 후 표집하였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쉬운 학생과 주부 집단에 대해서는 표본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학생은 20%가 넘지 않도록 하며, 무직자는 남성 응답자의 5% 이내, 가정주부 및 무직자는 여성응답자의 35% 이내로 설정하여 표집하였다. 이 자료의 수집을 위해 직접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원기입과 응답자기입 방식을 병행하였다.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1,251명으로서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이다. 본 연구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이들 응답자들 중에서 남성들인 625명이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두 번째 원자료는 역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조사(A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설문조사에 입각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20일까지 수집된 자료이다.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범죄피해 인식, 사회적 반응을 점검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설문지의 중요한 부분은 응답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범죄 일반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각종 범죄 피해 경험자의 피해사항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20세 이상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를 한 것으로 표본추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과 눈덩이표본추출 방식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과 단체 종사자를 만나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보제공자를 소개받았으며, 이들 정보제공자를 통해 해당지역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형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숫자가 많지 않고 또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밀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제공자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분포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광역단체와 해당지역의 북한이탈주민 분포비율에 맞게 표본크기를 정하였다.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214명으로서 마찬가지로 횡단면자료이다. 본 연구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이들 응답자들 중에서 남성들인 91명이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이처럼 두 가지 원자료의 공통변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친 것인데, 대한민국 남성들과 북한이탈남성들을 모두 합치면 716명의 사례가 된다. 두 원자료가 획득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범죄피해 및 범죄폭력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은 관련 언론의 보도 등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원자료가 대체로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32-34]. 다음에서는 공통변

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의 측정에 대한 살펴본다.

## 2. 변인의 측정

###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두 가지 원자료에서 상호비교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나이와 가구소득이다. 나이는 만 나이가 측정되었고,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전체소득으로 측정되었다.

### 2) 범죄피해의 두려움

일부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구체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범죄피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측정하여 사용한 경우[23]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측정변인은 구체적 범죄유형이나 상황을 전제하고 측정한 범죄피해의 두려움, 즉 정서척도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절도, 강도, 폭행 등 보다 구체적으로는 7가지의 범죄피해 상황을 전제하고 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신뢰도 계수값[ $\alpha$ ]=0.897).

### 3) 범죄피해 위험인지

범죄피해 위험인지는 범죄피해에 대한 가능성 지각과 심각성 지각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 지각은 미래에 범죄피해가 앞으로 실제로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로 개념화[35]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심각성 지각은 위험지각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 중 하나로서 위험의 위중도 혹은 심각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크기, 혹은 범죄피해 위험의 심각성의 크기에 대해 응답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평가로 개념화하였으며, 조사 설문에서는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의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

선행연구[23,25-27]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행동을 회피적 보호행동과 방어적 보호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할 경우가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자신을 포함하여 가정/자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누어 측정할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을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범죄피해로부터 가정/자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한다.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측정항목은 모두 6개로서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어떤 곳을 피해 다닌다',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그 일을 미룬다', '되도록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끝으로 '하루 이틀 집을 비워 놓았을 때 이웃집에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다'에 각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신뢰도 계수값[ $\alpha$ ]=0.831). 자신의 가정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측정항목은 모두 6개로서 '밤에 잘 때 꼭 창문까지 잠그고 잔다',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를 설치하였다', '창문밖에 쇠창살을 설치하였다', '비디오폰을 설치하였다', '관할 경찰서(파출소)에 비상벨, 방법전화를 연결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회사와 경비계약을 맺고 있다'에 각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예=1, 아니다=0)으로 측정되었다(신뢰도 계수값[ $\alpha$ ]=0.669).

###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정을 위해서 차이검정(독립표본 t 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설검정에 앞서 측정척도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사용한 신뢰도 분석을 했으며, 신뢰도 분석결과는 측정항목의 제시와 더불어 앞에서 이미 제

시하였다. 구성개념들의 신뢰도 계수 값은 0.669-0.897의 범위를 보여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16명의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우선 일반 한국남성은 625명(87.3%), 북한이탈남성은 91명(12.7%)이었다. 두 집단 간에 연령별 분포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관측되고(참고로, 일반 한국 남성 집단의 평균나이는 38.34세이고, 표준편차는 13.52인 반면, 북한이탈남성 집단의 평균나이는 40.26세이고, 표준편차는 12.36인), 특히 월가구소득의 분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로, 북한이탈남성 집단의 평균 월가구소득은 85.84만원이고, 표준편차는 58.39인 반면, 일반 한국남성 집단의 평균 월가구소득은 323.18만원이고, 표준편차는 116.79로 나타남).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의 심각한 열세는 선행연구[30,31]의 보고와 일치한다.

### 2. 일반 한국남성 집단과 북한이탈남성 집단 간 평균 차이검정

다음 Table 2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각각 정서, 인지, 행동척도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위험인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토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 위험인지 중 심각성 지각은 각각 일반 한국남성 집단보다 북한이탈남성 집단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반면 범죄 피해 가능성 지각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행동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평균적으로 북한이탈남성보다는 일반 한국남성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행동별로 통계적 유의미성 유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남성들의 범죄피해 대응 관련 일상적 행동이 더욱 자기보호적임을 발견

**Table 1.** Demograph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General Korean males	North Korean male defectors	Entire sample
Age	10-19	75 (12.0)	0 (0.0)	75 (10.5)
	20-29	108 (17.3)	15 (16.5)	123 (17.2)
	30-39	141 (22.6)	34 (37.4)	175 (24.4)
	40-49	161 (25.8)	30 (33.0)	191 (26.7)
	50-59	102 (16.3)	4 (4.4)	106 (14.8)
	60-69	38 (6.1)	4 (4.4)	42 (5.9)
	70-79	0 (0.0)	4 (4.4)	4 (0.6)
	No answer	0 (0.0)	0 (0.0)	0 (0.0)
Monthly family income	No income	0 (0.0)	7 (7.7)	7 (1.0)
	50 and below	0 (0.0)	18 (19.8)	18 (2.5)
	51-100	3 (0.5)	20 (22.0)	23 (3.2)
	101-200	47 (7.5)	37 (40.7)	84 (11.7)
	201-300	172 (27.5)	7 (7.7)	179 (25.0)
	301-400	220 (35.2)	0 (0.0)	220 (30.7)
	401-500	109 (17.4)	0 (0.0)	109 (15.2)
	501-600	62 (9.9)	0 (0.0)	62 (8.7)
	No answer	12 (1.9)	2 (2.2)	14 (2.0)
Total		625 (100)	91 (100)	71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Subscale measures of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on victimizations of crime/violence	t-value	General Korean males		North Korean male defectors	
		Mean	SD	Mean	SD
Fear of victimizations	2.55*	1.74	0.48	2.19	1.21
Theft of a car	2.14*	1.68	0.66	2.13	1.41
House burglary	4.31***	1.72	0.68	2.23	1.10
House breaking and violence	3.02**	1.89	0.62	2.30	1.27
Pickpocket	2.89**	1.75	0.67	2.14	1.27
Violence out of home	2.47*	1.75	0.64	2.08	1.25
Violence from a stranger	2.51*	1.73	0.64	1.93	1.02
Violence from an acquaintance	2.27*	1.67	0.62	2.07	1.65
Perceived vulnerability	-2.99	1.81	0.55	1.78	1.02
Perceived severity	5.12***	1.85	0.74	2.51	1.20
Self-protective behaviors	-2.66**	1.49	0.50	1.33	0.67
Avoiding certain places	-7.38***	1.48	0.59	1.15	0.36
Going with someone at night	-2.93**	1.38	0.60	1.22	0.47
Putting off a job for fear at night	-1.06	1.36	0.58	1.29	0.95
Not possessing cash if possible	-1.91	1.78	0.76	1.66	1.20
Avoiding going by taxi at night	-1.45	1.47	0.66	1.35	1.03
Ask for help to neighbors when vacating a house	-1.19	1.44	0.64	1.35	1.03

\*p<0.05, \*\*p<0.01, \*\*\*p<0.001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탈북남성들은 일반남성들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느끼고 있고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에 대해 스스

로를 보호하는 행동을 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가설 1, 2-2, 3-1이 모두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Table 3.** Home-protective behaviors in each group

		Entire sample (n=716)		X <sup>2</sup> or Fisher's exact test
		General Korean males (n=625)	North Korean male defectors (n=91)	
Going to bed after locking the window	Yes	485 (77.6)	55 (60.4)	12.62***
	No	140 (22.4)	36 (39.6)	
Doublelocking doors and windows	Yes	465 (74.4)	27 (29.7)	173.93***
	No	160 (25.6)	64 (70.3)	
Using iron window bar	Yes	292 (46.7)	46 (50.5)	0.47
	No	333 (53.3)	45 (49.5)	
Using video phone	Yes	176 (28.2)	3 (3.3)	41.10***
	No	449 (71.8)	86 (94.5)	
	No answer	0 (0.0)	2 (2.2)	
Using alarm bell service from the police station	Yes	22 (3.5)	1 (1.1)	8.98**
	No	603 (96.5)	88 (96.7)	
	No answer	0 (0.0)	2 (2.2)	
Using private security service	Yes	22 (3.5)	2 (2.2)	4.66
	No	603 (96.5)	88 (96.7)	
	No answer	0 (0.0)	1 (1.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 < 0.01, \*\*\*p < 0.001.

### 3. 일반 한국남성 집단과 북한이탈남성 집단 간 가정 보호행동의 차이검정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의 가정/자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 일반 한국남성 집단과 북한이탈남성 집단 간 차이를 교차 분석하여 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 중에서 밤에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취침( $X^2=12.62$ ,  $p<0.001$ ), 현관/창문에 이중자물쇠를 설치( $X^2=73.93$ ,  $p<0.001$ ), 비디오폰의 설치(Fisher의 exact test 검정통계량=41.10,  $p<0.001$ ), 관할경찰서/파출소에 비상벨 등 연결(Fisher의 exact test 검정통계량=8.98,  $p=0.007$ )의 네 가지 행동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행동, 즉 창문밖에 쇠창살 설치( $X^2=0.47$ ,  $p=0.50$ )와 민간 경비회사와의 경비계약 체결(Fisher의 exact test 검정통계량=4.66,  $p=0.117$ )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 외에 가정을 보호하는 행동 경험에 있어서도 대체로 일반 한국남성들이 북한이탈 남성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연구가설 3-2가 대체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문헌에서 아직 진지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북한이탈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 인지, 행동 반응을 일반 한국남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북한이탈남성들은 일반남성들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고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에 대해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행동을 덜 빈번하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북한이탈남성이 일반 한국남성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범죄폭력에 대응하는 심리사회 및 행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권력이 암묵적으로 승인한 합법화된 범죄폭력의 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일상 속에서 내면화해 왔기 때문에 그 심리적 여파는 작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한국



인들과 상호적응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공포성향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정확히 그 추론을 지지하여 주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난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위기를 드러내는 기존 연구들, 예컨대 미국 내 보스니아 난민의 정신, 정서적 외상과 부적응[36], 호주 내 아프리카 난민들의 실업 위기 외에도 혁신적 재배치 프로그램(relocation program)이 요청될 정도로 정신건강의 심대한 위협[37], 그리고 수단인들의 인종학살로 인해 이집트의 카이로에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다푸르(Dafur) 지역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외상적 증후군의 위기 상황[38] 등을 연구한 주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혹은 장차 평화통일이 실현된 한반도에 능동적 주체로서 통합되는 데 정신심리사회적 제약조건[39]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범죄로부터 보호행동을 적절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상적 범죄폭력의 피해로부터 극히 비정상적인 범죄공포와 위협인지에 있어서 지나친 민감성을 보여 주고 있는 북한이탈남성들의 특징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국가나 문화권 단위의 거시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존재로서 개인 단위의 미시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적 시사점들을 내포한다.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입국후 하나원에서 적응을 위한 단기교육을 받고 곧바로 남한의 경쟁체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통합 이슈는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실험과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통일이 가져올 심리학적 결과[39]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범죄 및 일탈행동이 급증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다양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40].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12]와 적응

[41]을 위한 미시적 정신보건의료정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충격적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접촉 및 치료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심리측정,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재활치료 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42]. 심리측정과 상담이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부재[3]하는 등 현재 이와 같은 기능들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조기에 평가·사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 활용할 필요[18,4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적 척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미시적 개입 정책의 근거를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와 같은 일관성을 가진 척도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부적응 양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향후 근거중심의 정신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남성들과 일반 한국남성들 간에 정신건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발견은 향후 탈북자들의 치료와 적응을 돕거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한국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적 통일교육[39,44]을 위한 주요 콘텐츠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현실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TV 시청 등 매스 미디어의 이용이 일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문헌들[32,34]이 있음을 고려하여 미디어 메시지의 제작이나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탈북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취약한 정신건강을 배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정신건강을 위해 보다 거시적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와서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들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미시적 개입과 정

신보건 정책만이 긴급한 것만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정책은 제3국, 특히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 및 지원 정책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한국행을 돕기도 하는 측면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정부에 의해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제난민협약상의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하였음에도 여전히 폭력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고, 체포되면 북한에 송환된다는 극도의 공포감속에서 유랑하고 있다[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소위 ‘조용한 외교’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한국은 대중국 무역흑자로 인해 점차 중국에 의존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경제논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은 체포와 강제소환의 공포속에 떨면서 갇은 인권침해를 견뎌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력 문제를 사실상 좌시하는 비인도적이고 무기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2].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이들의 정신신체건강의 심대한 훼손과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막대하게 증가하는 심리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고 집행되고 있으면서 정책 대상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제3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신건강과 인권의 논리로 풀어 가기 위해서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과 설득, 국제적 공조, 비정부기구와의 협조, 국제적 전문가 지지연결망(international professional support network) 구축[42]등 구체적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일시적 보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남성들로만 국한하였다는 점에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유용한 작업임이 틀림없으나, 북한이탈여성들은 제3국에서 여성난민으로서 매우 위협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중국에서의 장기체류과

정에서 남성들과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고[45] 범죄폭력 피해 위험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에는 성별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23,46]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북한이탈남성들로 국한시켰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남성들의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 비록 국책연구원의 전문인력의 조사설계를 거쳐 획득된 비교적 양질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눈덩이표본추출 과정에서 표본의 편향성 문제가 잠재하며, 그것이 연구결과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들을 포함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연구에 대체로 표본추출의 편의성이 제한점으로 거론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36,43],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범죄폭력피해에 대한 반응으로만 측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는 심리적 외상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 다른 심리적 기능도 함께 측정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북한이탈남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죄폭력피해; 정신건강; 보건정책

## REFERENCES

1. Yoon IJ, Kim S. Health and medical c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ealth Soc Sci* 2005;17:149-182.
2. Lee S.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with the emphasis on the administration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Korean J Int Relat* 2009;49(5):251-271.
3. Yang KM, Hwang ST. An initial study into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the first stages of their transition to life in South Korea. *Stud Korean Youth* 2008;49(2):333-358.
4. Cho Y, Yoo S. A study on the role a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Unification Policy Stud* 2006;15(2):53-77.
5. Alvarado SE, Massey DS. In search of peace: structural adjustment, violence,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nn Am Acad Pol Soc Sci* 2010;630:137-161.
6. Brown G. Issues in the resettlement of indochinese refugees.

- Soc Casework 1982;63:155-159.
7. Shin KR.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City. *Women Health* 1994;21:73-82.
  8. Nicholl C, Thompson A.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adult refugees: a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psychological therapies. *J Mental Health* 2004;13:351-362.
  9. Noh S, Avison WR.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 Health Soc Behav* 1996; 37:192-206.
  10. Oberg K. Culture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e environments. *Pract Anthropol* 1960;7:177-182.
  11. Tyhurst L. Displacement and migration: a study in social psychiatry. *Am J Psychiatry* 1951;107:561-568.
  12. Eom TW.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psychosocial cris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refugee and immigrant model. *Unification Policy Stud* 2007;16(2):173-197.
  13. Harel-Fisch Y, Radwan Q, Walsh SD, Laufer A, Amitai G, Fogel-Grinvald H, Abdeen Z. Psychosocial outcomes related to subjective threat from armed conflict events (STACE): findings from the Israeli-Palestinian cross-cultural HBSC study. *Child Abuse Negl* 2010;34:623-638.
  14. Parsons J, Bergin T. The impact of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on victims' mental health. *J Trauma Stress* 2010;23:182-188.
  15. Morrall P, Marshall P, Pattison S, Macdonald G. Crime and health: a preliminary study into the effects of crime on the mental health of UK university students. *J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0;17:821-828.
  16. Jeon W, Hong C, Lee C, Kim DK, Han M, Min S. Cor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 Trauma Stress* 2005;18:147-154.
  17. Oh SS, Shin HK, Cho Y. Chronic post 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5 · 18 victims. *Korean J Psychol* 2006;25(2): 59-75.
  18. Yoon YS, Kim HA, Han SY. Validation and development of a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n J Couns Psychother* 2007; 19:693-718.
  19. Kim HK, Shin HK. Psychological symptoms before and after the settle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Korean J Psychol Gen* 2010;29:707-724.
  20. Kim TJ. Tasks for the management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Public Law J* 2005; 6(1):249-279.
  21. Radar NE. The threat of victimization: a theoretical recon-  
ceptualization of fear of crime. *Social Spectr* 2004;24: 689-704.
  22. Radar NE, May DC, Goodrum S.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threat of victimization:" considering fear of crime, perceived risk, avoidance, and defensive behaviors. *Social Spectr* 2007;27:475-505.
  23. Kim JH. The gendered nature of the threat of victimizations and protective behaviors. *Korean Assoc Public Saf Crim Justice Rev* 2010;40:71-113.
  24. Harris CR, Jenkins M, Glaser D. Gender differences in risk assessment: Why do women take fewer risk than men? *Judgm Decis Mak* 2006;9:48-63.
  25. Liska AE, Sanchirico A, Reed M.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pecifying and estimating a reciprocal effects model. *Soc Forces* 1988;66:827-837.
  26. Wilcox P, May DC, Roberts SD. Student weapon possession and the "fear and victimization hypothesis:" unraveling the temporal order. *Justice Q* 2006;23:502-529.
  27. Woolnough AD. Fear of crime on campus: gender differences in use of self-protective behaviours at an urban university. *Secur J* 2009;22:40-55.
  28. Winkel FW, Blaauw E, Sheridan L, Baldry AC. Repeated criminal victimization and vulnerability for coping failure: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a potential risk factor. *Psychol Crime Law* 2003;9:87-95.
  29. Kim JH.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internal cues to action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cyber communication: modifying health belief model. *J Cybercommunication* 2010;27(3):5-46.
  30. Kim YH, Cho YA, Yu S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of North Korean settlers: a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poor. *Korean J Soc Welf* 2009;61:195-218.
  31. Lee KY, Yoon KA. Community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for facilitating North Korean refugees' resettlement in local areas: a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n J Soc Welf* 2003;55:103-130.
  32. Kwak JR, Park SG. Saeteomin's media use and their development of trust, network, and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 Commun Stud* 2006;50(6):415-439.
  33. Keum H. Media and social capital: a suggestion for South-North Korea relations. *Commun Theor* 2008;4(1):128-149.
  34. Lee MK, Woo HJ. A study on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perceived social reality about South Korea influenced by television drama viewing: focusing on cultivation effect and accumulation theory. *Korean J Commun Stud* 2004;48(6):248-273.
  35. Dogan DG, Ertem IO, Karaaslan T, Forsyth BW. Perception of vulnerability among mothers of healthy infants in a middle-income country. *Child Care Health Dev* 2009;35:868-872.
  36. Weine S, Knafl K, Feetham S, Kulauzovic Y, Klebic A, Sclove S,

- Basic S, Mujagic A, Muzurovic J, Spahovic D. A mixed methods study of refugee families engaging in multiple-family groups. *Fam Relat* 2005;54:558-568.
37. Broadbent R, Cacciattolo M, Carpenter C. A tale of two communities: refugee relocation in Australia. *Aust J Soc Issues* 2007;42:581-601.
  38. Meffert SM, Marmar CR. Darfur refugees in Cairo: mental health and interpersonal conflict in the aftermath of genocide. *J Interpers Violence* 2009;24:1835-1848.
  39. Shin HW, Yi JH, Han SY, Hur TK, Chae JM.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2004;10(1):147-163.
  40. Yang JH. The impact of North Korean society's violences on adaptations of saeteomins to South Korean society. *Korean Policy Sci Rev* 2005;9(4):607-630.
  41. Kim YN.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terms of their acculturative process in South Korea. *Stud Korean Youth* 2008;19(3):139-168.
  42. Kim HK. A study on the recovery predictive factors for North Korean refugees with torture experience. *Korean J Soc Welf Stud* 2010;41(3):81-106.
  43. Cho YA, Kim YH. Predictors of mental health risks in newly resettled North Korean refugee women. *Korean J Woman Psychol* 2010;15:509-527.
  44. Chung JK, Cho JA. Issues in the integr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hosts. *Korean J Psychol Soc Issues* 2008;14:487-518.
  45. Lee K.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women migrants: focusing on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J Asian Women* 2006;45(1):191-234.
  46. Ferraro K.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 Forces* 1996;75:667-690.



##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외상과, 외상으로 인한 사회생활행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생활한 때와 이탈과정에서 심신에 많은 상처를 받았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리라 기대된다. 조사 대상과 내용을 타 연구의 이차자료를 활용한 결과 연구내용이 제한된 점, 정신외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점 등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의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리:편집위원회]